

# 중·일 레이더 조준 갈등 격화…오키나와 공해상 긴장 고조

中, 일본 책임론 강조·日 강력 항의…양국 여론전 격돌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 언급하면서 중일 갈등이 고조된 이후,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해 상에서 일본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한 일을 계기로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 당국은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염중히 요구하는 한편, 중국 당국과 관영매체는 일본의 여론전을 경계하며 '일본 책임론'을 부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오키나와 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간헐적으로 이어갔다. 전투기의 레이더 조준은 공격 목표를 정하는 화기 관제나 주변 수색 용도로 사용되지만 중국 측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이즈미

신자로 방위상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항의하며 중국 당국의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중국이 격렬히 반발하며 '일본 방문 자제령'이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압박 카드를 던져온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군의 공세적 행동을 비판하는 새 전선이 열린 셈이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천'은 8일 게시물에서 '레이더 조준' 갈등을 두고 "중일의 전투(싸움)이 2단계로 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초점을 옮기고 국면을 이탈하거나 흔들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 게임은 바둑과 같아서 한쪽이 수세에 몰리면 다른 곳에 수를 두고 판을 어지럽히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뉴탄천은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해 일본 군용기가 감시 임무에 나섰는데 중국이 공격 태세를 취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중국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일본은 완전히 '피해자' 역할이라는 인상을 준다"며 "언어의 전장(戰場)은 종종 현실의 교전을 앞둔다. 서사의 힘을 장악하는 쪽은 여론의 방향을 이끌려고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이미 고이즈미 방위상의 기자회견 이후 국방부·외교부를 통해 차례로 반박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중국 국방부는 "일본은 중국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감시하면서 소리를 피웠고, 여러 번 항공기를 보내 중국이 설정·공포한 훈련 구역을 침범했으며, 사후에는 중국의 정상적인 행위를 무고했는데 이는 도적이 적잖았으라고 고합지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이른바 '레이더 조준' 문제를 선전하는 것은 흑백을 뒤집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긴장 정세를 과장하고 국제 사회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를 오도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당국의 이같은 입장을 다시 재반박했다. 중국군 전투기의 레이더 조준과 관련해 "자위대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영공 침범 조치에 대응하는 임무를 하고 있었다"며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중국 측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이번 레이더 조준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위험한 행위"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 측이 문제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는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의원들도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준 비판에 가세했다. 자민당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열린 당내 회의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도 "틀림없이 (중국 측 압박) 수준은 한층 위험한 방향으로 올라갔다"며 "도발 행위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일본, 일장기 훼손 처벌법 현실화 '논란'

"일장기 X표시, 국가를 깎아내리는 것" vs "표현의 자유 침해"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장기 훼손 처벌법 신설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 출범 후 일본 국기인 일장을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연립합의서에 국기손괴죄 신설안이 명기되어 있고, 극우 성향의 참정당은 지난 10월 일장기 훼손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이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전날이다. 가미마 소하이 참정단 대표가 거리 연설을 했던 도쿄 미나토구의 한 공원에 엑스(X)자 표시가 된 일장기가 등장했다.

현장에는 '일본인 퍼스트는 차별' 등의 내용을 담은 팻말을 든 시위대도 있었다.

가미마 대표는 "(일장기에 엑스 표시를 하는 것은) 국가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공공의 복지 측면에서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없다"며 법안 제출을 지시했다.

참정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일본에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국기 등을 손괴, 제거, 오손한 경우 2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만엔 이하의 별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장기에 엑스자 표시를 하는 것은 오순에 해당한다.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립합의서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국기손괴죄를 제정한다고 명기돼 있다.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민당과 유신회, 그리고 참정당의 의석을 합치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수 되므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자민당 내부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미마 대표의 거리 연설회장에서 엑스 표시를 한 일장기를 들고 시위했던 대학생(21)은 마이니치신문에 "전황제 반대를 위해 일장기 시위를 한 것인데 마침 그때 참의원 선거와 겹친 것"이라며 "차별적 주장을 하는 참정당에 대한 반대 의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람들로부터도 '일장기에 엑스 표시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손괴죄 제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엑스 표시해도 된다'는 쪽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참정당 개정안에 있는 '일본에 모욕을 가할 목적'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대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했고, 우두머리인 오사마 빙라덴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공격해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다.

20년 만인 2021년 미군이 철수하자 재집권한 탈레반은 이슬람 유통(샤리아)을 엄격하게 해석해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을 금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

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여성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은 옛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에 서 처음으로 집권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대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했고, 우두머리인 오사마 빙라덴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공격해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다.

20년 만인 2021년 미군이 철수하자 재집권한 탈레반은 이슬람 유통(샤리아)을 엄격하게 해석해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을 금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

## “탈레반, 여성 유엔 출입 제한 철회하라”

유엔여성기구 “시설 접근 보장해야 인권·구호 활동 가능”

유엔여성기구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 정권에 여성의 유엔 시설 출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최근 성명을 내고 "아프간 여성 직원과 계약직의 유엔 시설 출입을 금지한 조치를 철회하고 사무실과 현장에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수잔 퍼거슨 유엔여성기구 아프간 특별대표는 "이런 제한이 지속될수록 생명을 구하는 활동이 위

협받는다"며 "이는 유엔의 인권과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여성기구는 아프간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탄압으로 여성 직원 몇 명이 영향을 받는지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AFP는 유엔 소식통 말을 인용해 여성 수백명의 시설 출입이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퍼거슨 특별대표는 최근 3개월 동안 여성 직원들은 원격 근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키스탄이나 이란에서 추방된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에게 안전하게 접근하고 문화적으로 적

## 루브르 박물관, 바람잘 날 없다

누수로 고대 이집트 도서 수백 권 손상…보수·개선 작업 추진

지난 10월 보석 도난 사건을 겪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번에는 누수로 인해 고대 이집트 담당 부서의 도서 수백권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달 말 누수가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박물관의 이집트 부서 내에 있던 300~400권의 도서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프랑시 스팽보크 루브르 부관리자는 피해 작품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이집트학 서적과 과학 문서"라고 말했다.

그는 손상된 작품들이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것이며 "매우 유용하지만 절대 유일무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 해당 소장품에 회복할 수 없는 명확한 손실은 없다"며 물에 젖은 소장품들이 견조된 뒤 복원 과정을 거친 다음 서가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예술 전문 사이트 라 트리뷴 드 라르는 루브르의 설명과 달리 이번 누수로 인해 약 400권의 희귀 도서가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루브르는 이번 누수가 배관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물관은 노후화로 인해 난방 및 환기 시스템의 밸브가 실수로 열렸고, 도서가 보관된 건물 천장을 통해 물이 스며든 것으로 보고 내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탱보크는 배관 노후화 문제가 이미 알려진 문제로, 내년 9월 수리가 예정돼 있다.

최근 보석 도난 사건부터 이번 누수에 이르기 까지 여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루브르 박물관의 관리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루브르 박물관은 4인조 괴한의 침입으로 1천499억원 상당의 보석 8점을 도난당한 뒤 부실한 보안관리로 뜻메를 맞았다.

이어 지난달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도자기 전시관인 캄파나 갤러리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루브르는 지난달 말 비(非) 유럽연합(EU)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입장료를 현재 22유로(3만7천원)에서 32유로(5만5천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료 인상으로 얻은 추가 수입을 보수·개선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NH 콤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콤!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콤!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콤!

zgm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기준)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동립아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아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립점 062)511-2901~3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상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립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